

정보처리20주년

금년은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도입가동된지 공식적으로 20년이 되는 해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처리업무도 연륜으로 성년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발전단계를 도입기, 성장기, 통제기, 성숙기의 4단계로 구분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처리 발전단계는 성장기를 벗어나, 통제기에 돌입하는 단계에 위치해 있으므로, 발전과정 및 정보처리 주변환경 역시 성년을 맞이하고 있다.

성년은 인생으로 비유하면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탈바꿈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보처리분야 종사자들은 정보처리업무의 도입정착을 위한 사명감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성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냉철히 분석하여 보면, 정보처리분야도 도입 초창기에는 경영층의 전산화도입 추진을 위한 배려, 정보산업의 정착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컴퓨터 수입의 규제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연구개발비 처리 등 일부 보호속에서 성장하여 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보호는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듯이, 정보처리업무의 태동 및 정착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처리업무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김성수
前 (주)공관 상무이사



중심으로 양적팽창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한, 질적향상을 꾀해야 하고 통신시스템과 결합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정보처리성년으로서 자립 성장하여야 하는 변혁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종사자들이 술선수범하여 “하면된다”식의 사고방식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식의 사고방식과 행동원칙의 전환, 자발적인 자기변화,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기술. 경험의 축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